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진행된 화상인터뷰. 사진제공 | 블리자드

“역대급 규모…가장 야심찬 디아블로”
모바일 ‘디아블로 이모탈’, 내달 출격
PC버전도 공개…“지속적인 콘텐츠로 즐거움 선사”

화제의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이 6월3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디아블로’ 시리즈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첫 다중접속(MMO)게임인 동시에 첫 모바일게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서울 역삼동 조선 팰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화상 인터뷰를 통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로드 퍼거슨 디아블로 프랜차이즈 제너럴 매니저와 조 그럽 디아블로 이모탈 총괄 디자이너에게서 게임에 대해 들어봤다.

-PC로도 선보이는 이유는.

(로드 퍼거슨) “모바일은 오픈베타가 아닌 완전한 버전으로 출시된다. 오픈베타는 PC버전이다. PC버전을 추가한 것은 테스트 기간에 많은 유저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바일은 많은 이용자들이 즐기는 좋은 방식이지만 PC 이용자도 많기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 결정은 전체 개발기간 후반부에 내렸다. 다만, 그럼에도 이모탈은 모바일 퍼스트로 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조 그럽) “역대 가장 큰 규모, 그리고 가장 야심찬 ‘디아블로’를 만든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 어려움을 수반했다. 디아블로 사상 첫 MMO게임이면서 모바일게임이다. 이전 디아블로에선 볼 수 없던 대규모 소셜 시스템 등이 탑재됐다. 많은 과정을 거쳐 디아블로 이모탈을 선보이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

-한국에선 디아블로 파급력이 크다. 성과 기대감은.

(로드 퍼거슨) “굉장히 잘 뛴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 한국 내에서 디아블로를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좋아하는지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론칭하면서 실감했다. 많은 사람이 즐기는 모바일 플랫폼에 디아블로를 선보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만드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런 즐거움을 유저들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업데이트 계획은.

(조 그럽) “론칭할 때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선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굉장히 광범위한 콘텐츠를 수년에 걸쳐서 선보일 것이다. 스토리부터 지역, 던전, 직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현대차-고려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립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인재 직접 양성한다



26일 고려대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열린 현대차-고려대 계약학과 설립 협약식. 정재훈 현대차 사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고려대와 함께 국내 최초로 채용조건형 학·석사 통합과정의 계약학과를 설립한다. 수소,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고려대는 26일 오전 고려대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정재훈 현대차 사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모빌리티 학부’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스마트모빌리티 학부는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인 수소, 로보틱스 2개 분야의 특화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다. 입학생들은 학사, 석사과정 수업 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해 5년 만에 석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학사 3.5년+석사 1.5년). 2023년도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50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

원성열 기자

천문학적 투자로 경제 지원 나선 재계



지난해 연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포럼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밝히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사진제공 | SK

〈배터리·바이오·반도체〉

SK, ‘BBC’에 247조 투자
국내서 5만 명 인재 채용

반도체·소재에 142조 투자 계획
수소 등 친환경분야에 67조 투자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 채용

SK그룹이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등 이른바 BBC 산업에 집중 투자해 핵심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투자와 고용창출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BBC는 이들 3가지 분야의 영여 앞 글자를 딴 약칭이다.

SK그룹은 2026년까지 BBC 분야를 중심으로 24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BBC를 키워나갈 5만 명의 인재를 국내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179조원은 국내에 투자한다.

SK그룹은 AI(인공지능)와 DT(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반도체라고 보고,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에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인 1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투자 금액 중 179조 원은 국내에 투자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인재 채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BBC 산업 강화에 사활 걸었다

SK그룹은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210억 톤)의 1%인 2억 톤의 탄소를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수소, 풍력,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 산업에 67조 원을 투자해 넷제로(Net Zero-탄소 배출량 0으로 만들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SK그룹은 2026년까지

▲반도체와 소재 142.2조 원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 67.4조 원 ▲디지털 24.9조 원 ▲바이오 및 기타 12.7조 원을 투자한다. 전체 투자금의 90%가 BBC에 집중될 만큼 핵심성장 동력 강화에 사활을 걸었다.

반도체 및 소재 분야 투자는 주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집중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반도체 팹(Fab) 증설, 특수가스와 웨이퍼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 증설 등이 투자 대상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반도체 및 소재 분야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2·3차 협력업체 투자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에너지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와 분리막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최근 SK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그린 에너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바이오 분야는 뇌전증 신약과 코로나19 국내 백신 1호 개발 신화를 이어갈 후속 연구개발비와 의약품유통생산 시설(CMO) 증설 등이, 디지털 분야는 유무선 통신망과 정보통신 콘텐츠 개발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SK그룹은 성장동력을 찾고, 이를 키워나가는 주체는 결국 인재라고 보고 2026년까지 5년간 5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SK에 앞서 신규 고용계획을 밝힌 삼성, 현대차, LG, 롯데까지 포함하면 5대 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에서 신규 채용하게 될 인원은 최소 26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기도 평택 LG 디지털 파크 내 LG전자 HE연구소를 방문한 구광모 LG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제공 | LG

LG, 국내에만 106조 투자
생산·R&D 핵심기지 육성

연구개발에만 48조원 투입 예정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선제 대응”
AI 등 첨단산업 중심 인재 채용

LG그룹이 2026년까지 국내에서 배터리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106조 원을 투자한다. 또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5년 간 총 5만 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게 되더라도 총 투자액 가운데 상당 비중을 국내에 투자해 그룹의 최첨단 고부가 제품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R&D) 핵심기지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구광모 LG 회장은 전략보고회에서 이에 대한 강한 실행을 주문할 계획이다.

●R&D에 48조 원 투입

LG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106조 원을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중 연구개발에만 48조 원을 투입한다. LG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는 국내투자 가운데 약 40%인 43조 원을 미래성장 분야에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 중 절반에 가까운 21조 원은 배터리·배터리소재,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AI·데이터, 바이오, 친환경

클린테크 분야 R&D에 쏟아붓는다. 우선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공장에 추가 투자를 단행해 원통형 배터리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양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 분야에 1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경북 구미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과 합

작회사(JV) 등도 검토 중이다. AI와 빅데이터 기술 확보를 위해선 3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LG AI연구원을 중심으로 초거대 AI ‘엑사원’ 및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외에 바이오 분야는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1조5000억 원 이상을, 친환경 클린테크 분야에는 1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매년 1만 명씩 채용

LG는 전자, 화학, 통신 등 주력사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성장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매년 약 1만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첨단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 동안 AI와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친환경 소재, 배터리 등 R&D 분야에서만 전체 채용 인원의 10%가 넘는 3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계약학과, 산학협력생 등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스마트공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등 협력사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1조2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광모 회장은 30일 LG전자 HE(홈엔터테인먼트)사업본부부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전략보고회’에서 계열사 경영진들과 중장기 사업전략을 논의하고, 그룹 차원의 미래준비를 살펴볼 예정이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장기 투자와 채용도 계획한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강하게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LG관계자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고객가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라는 기업의 소임을 적극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포스코·현대중공업·신세계, 대규모 투자 계획 잇달아 발표

포스코, 53조 투자…핵심사업 강화
현대중은 친환경·디지털 전환 투자
신세계, 온·오프라인 유통 집중 확대

포스코,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26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까지 국내 33조 원을 포함해 글로벌 53조 원을 투자하고, 약 2만5000명을 고용한다. 이를 통해 그린 철강, 이차전지소재 및 수소 등 친환경 미래소재, 친환경인프라, 미래기술투자 등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위상을 공고히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미래를 책임질 분야로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꼽고, 이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21조 원을 투자하고, 총 1만 명을 채용한다. 스마트 조선소 구축과 건설 분야 자동화, 무인화 기술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 기계 인프라 구축, 스마트 에너지사업 투자 등에 12조 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연구개발(R&D) 분야에 총 7조 원을 투자한다. 조선 사업 분야에서는 수소 운송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건설기계

철강,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등 그룹 7대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2030년까지 기업가치를 3배 이상으로 높이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발돋움하는 게 목표다.

신세계그룹은 오프라인 유통 사업 및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 자산개발 및 신규 사업 등을 테마로, 5년간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간다. 먼저 오프라인 사업 확대를 위해 11조 원을 투자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신규 출점과 기존점 경쟁력 확대를 위해 3조9000억 원을, 이마트 역시 트레이더스 출점과 기존점 리뉴

얼 등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신세계 프라퍼티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스타필드 수원을 필두로 스타필드 창원과 스타필드 청라 등 신규 점포 출점을 위해 2조2000억 원을 집행한다.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3조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이베이크리아와 W컨셉 인수를 기반으로 향후 온라인 사업에서의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물류센터와 생산설비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자산개발의 경우 화성 테마파크 사업과 복합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5년간 4조 원을, 또 헬스케어와 콘텐츠 사업 등 그룹의 지속 성장을 이끌 신규 사업 발굴에도 2조 원을 투자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